

반만년민족사에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펼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1 번 에서 계속

너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세계를 경한시킨 주체조선의 편이온 특대사변이 우리 당 병진조선의 자랑찬 승리이고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위력에 진정한 정화가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 주었다.

승리자들의 환희와 경축의 열기가 끊없이 넘쳐나는 종무들은 즐기치고 역센 향도의

힘으로 강대한 조선을 이끄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과 당의 위업에 충직한 인민의 일관단심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의 시대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가는 위대한 당을 따라 병진의 한길로 역사계 전진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백박지는 공연은 판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끝났다.

혁명의 만리마를 타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질풍처럼 내달리는 강국의 위상이 나타치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할 인민의 불타는 총정과 철의 신념이 천만심장의 합창으로 메아리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무리러 또다시 러쳐올리는 《만세!》의 무절친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품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천민총동적전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책동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

켜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축하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의 민족사적대 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어나가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의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 세울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 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